



필리핀 경제,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3高 위기속 한국계 기업 대응 전략

KEB Hana Bank Manila Branch

I. 연초 예상 2026년 필리핀 거시경제 전망

- GDP 성장률: 25년 4.4%로 주춤. 26년 공공 투자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약 6%대 성장으로 복귀 전망.
- 인플레이션 : 25년 1.7% 기록.(정부 강력한 물가통제) 26년 3월 기준 4.1%. 중앙은행(BSP)의 목표치 3.0% 상회.
[지정학적 리스크 > 에너지 가격 상승]
- 기준 금리: 현재 4.25%, 물가 안정을 위해 다소 매파적(Hawkish)인 입장 고수

1. 필리핀 연간 GDP 성장률 (2022-2025)

팬데믹 이후 강력한 반등(Rebound)을 보였으나, 25년 인프라 관련 이슈와 기상 악화(태풍) 등으로 인한 하락

연도 (Year)	연간 성장률 (YoY)	비고
2025년	4.4%	정부 목표치(5.5~6.0%) 하회, <u>5년 내 최저치</u>
2024년	5.7%	서비스업 및 가계 소비 견인
2023년	5.6%	고금리/고물가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 유지
2022년	7.6%	팬데믹 이후 강력한 리오프닝 효과

I. 연초 예상 2026년 필리핀 거시경제 전망

2. 분기별 GDP 성장률 상세 (Year-on-Year)

연도	1분기 (Q1)	2분기 (Q2)	3분기 (Q3)	4분기 (Q4)
2025년	5.4%	5.5%	<u>3.9%</u>	<u>3.0%</u>
2024년	5.8%	6.4%	5.2%	5.3%
2023년	6.4%	4.3%	6.0%	5.6%
2022년	8.2%	7.5%	7.6%	7.1%

필리핀 통계청(PSA) 26년 1분기 GDP 확정치 공식 발표 26년 5월 7일 예정.

* 성장세 둔화의 원인(2025년 특히, 3분기, 4분기)

- ① 공공 인프라 지출의 일시적 중단 (부패 스캔들 영향)
- ② 잇따른 강력한 태풍으로 인한 농업 섹터 타격

* 회복 기대 요소(2026년): 정부 인프라 사업의 재개, 그리고 25년의 '낮은 기저효과'로 인해 6%대 성장 복귀

II. 2025년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의 4대 원인 분석(일반적인 관점)

1. 정부 지출의 급격한 수축

결정적인 이유 '정부 지출' 마비.

- 25년 중반부터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Build, Better, More) **부패 의혹 제기**로 관련 예산 집행 줄줄이 중단.
- **GDP 성장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지출**과 건설 부문 투자 중단 > 고용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3. 고금리 누적 효과와 가계 부채 부담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 실물 경제 본격적인 타격.

- 물가를 잡기 위해 올린 **고금리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25년 하반기 소비 시장에 직격탄**.
- 필리핀 **경제의 엔진인 민간 소비(GDP의 약 70%)**가 급격히 감소. 특히 자동차, 가전 등 할부 금융의존도가 높은 내구재 소비 4분기 최저치 기록.

2. 슈퍼 엘니뇨와 잇따른 태풍

기상 이변이 농업 국가인 필리핀의 기초 체력 훼손.

- 25년 3분기까지 이어진 **최악의 엘니뇨로 가뭄이 지속되다, 4분기 역대급 강도의 태풍이 루손 북부 곡창지대 강타**.
- 쌀, 설탕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급감하며 농업 성장률 마이너스로 전환 >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 파괴**.

4. 증동발 에너지 쇼크와 무역 적자 심화

2025년 내내 고조된 **증동 정세 불안**이 수입 물가 자극.

- 미국 **對 이란 핵시설 공격** 및 이스라엘과 이란 공격 등 유가 불안정에 따른 에너지 수입 비용증가.
- 생산 비용 상승으로 제조업 마진 급감했고, 외환 시장 폐소화 가치가 하락하며 **수입 물가가 다시 치솟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성장 훼손 .

II. 2025년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 분석(전문가적)

1. 2025년 4분기 성장 둔화의 **본질** (GDP 3.0%)

4분기 GDP 수치 **지난 14년 내(팬데믹 제외) 최저치.**

- 정부 지출의 부재: 부패 조사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 마비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지출 급감 결정타.
- **외국인 직접 투자 부진**: **국내외 직접 투자(FDI)가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문제.
- **해외 송금(OFW)의 한계**: 해외 송금은 꾸준하나, 이를 넘어선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Hot Money 등) 부족**. **BPO 하락세(AI 타격).**

2.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 '**산업 정책의 부재**'

- **제조업 결핍**: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와 달리 **필리핀은 제조업 기반 매우 취약**. "살 수 있는 기업이 없다(Nothing to buy)"고 표현할 정도로 근본적인 산업 생태계 빈약.
- **통화 정책의 한계**: "**좋은 통화 정책이 산업 정책을 대신할 수 없음**" 단순히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어려움.

III. 2026년 GDP 성장률 전망

구분	2026년 1분기 (추정치/전망)	2026년 연간 (전망)	주요 근거
필리핀 정부	5.5% ~ 6.0%	6.0% ~ 7.0%	공격적인 인프라 지출 재개 및 내수 회복
ADB	약 4.2% ~ 4.5%	4.4%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물가 압력 반영
민간 경제기관	5.0% ~ 5.3%	5.3% ~ 5.8%	2025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기대

- 2026년 1분기 리뷰

- 재정 지출 '캐치업(Catch-up)'** : 25년 하반기, 부패 조사 등으로 지연되었던 **정부 공공 지출 26년 1Q 본격적으로 재개**되며 성장 견인.
-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지배구조 개혁 및 반부패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1분기 중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IT-BPM) 섹터를 중심으로 유입.
- 인플레이션 통제 여부**: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중앙은행의 목표 상단인 4%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 **1분기 성장이 '소비'보다는 '투자'에 의해 주도.**

정부 지출 정상화와 외국인 투자 유입이 맞물리며 다시 6%대 성장 가도로 재진입

IV. 전쟁 &... 기름

2026년 1분기 경제 하방 압력 분석

1. GDP 성장률 **대폭**하향 조정

전쟁 여파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5%대 중반 성장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지배적.

- 수정 전망치: **2026년 1분기 GDP는 약 3.1%~3.3% 수준**에 그칠 것 예상. (당초 5.0% 이상 기대)
- 원인: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내수 소비를 위축시켰고,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연기

2. **에너지 비상사태** 및 물가 폭등

2026년 3월 24일 마르코스 대통령 대통령령 제110호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인플레이션: 2월 2.4%였던 **물가상승률 3월 4.1% 급등**.
- 유가 충격: 수입 원유의 100% 가까이를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상, 디젤 가격 한 달 새 60% 가까이 폭등. **운송비와 식료품 가격을 동시에 밀어올리고 있음**.

IV. 전쟁 &... 기름

2026년 1분기 경제 하방 압력 분석

3. 외환 시장 변동성

- 페소화 약세: 달러 대비 페소 **환율 60페소 돌파**. 역대 최저 수준 위협.
- 송금액 리스크: 중동 지역 거주하는 약 250만 명의 OFW 전쟁권 노출로, 필리핀 경제의 7%를 차지하는 해외 송금 유입 감소 위험

리스크 항목	현재 상태 (2026. 04)	대응 전략 (Strategic Response)
유가 급등	브렌트유 \$130 돌파	유류세 한시적 감면 및 에너지 절약 정책 가동
물가 불안	3월 4.1% (상승 중)	중앙은행(BSP)의 금리 인상 카드 검토 (매파적 전환)
공급망 차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체 에너지원(LNG 등)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내수 위축	소비 심리 위축	정부 주도 인프라 사업(BBM) 조기 집행으로 보완



V. 최근 물가 폭등의 3대 핵심 요인

① 에너지 및 **교통비** 쇼크 (Energy & Transport)

- 3월 교통비 전년 比 9.9% 급등.
- 디젤 가격이 한 달 만에 59.5%, 가솔린이 27.3% 폭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의 54.8%를 견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필리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② 페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 인플레이션**'

- 전쟁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선호기조로 페소 가치 급락.
- 필리핀은 **에너지와 식료품(특히 쌀, 비료) 수입 의존도**가 높음. 페소 환율이 60페소까지 밀리면서 수입 원가가 상승, 국내 판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중.

③ **공급망 교란**과 생활비, 주거비 가격 상승

- **물류비 상승과 비료 공급망 차질**이 발생.
- 생산 비용 상승 전이로 그나마 관리되었던 물가마저 다시 4%대로 끌어올리는 불씨. 식료품(3.0%) 및 주거/유틸리티(4.5%)로 전이. 특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쌀과 농산물 가격이 2분기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

VI. 물가 비상.비상. 비상

2026년 필리핀 인플레이션은 중동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로 인해 당초 낙관적인 전망에서 '**비상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

전쟁 발생 전(1~2월)에는 2%대의 안정적인 흐름 예상했으나, 3월 물가가 4.1%를 돌파하며 전망치 대폭 상향.

기 관	수정 전망치 (연간 평균)	직전 전망치	주요 사유
필리핀 중앙은행 (BSP)	5.1%	3.2%	유가 충격 및 페소화 가치 급락
아시아개발은행 (ADB)	4.0%	3.5%	공급망 차질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
세계은행 (World Bank)	4.5% ~ 5.0%	3.6%	중동 분쟁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IMF (국제통화기금)	4.7%	3.7%	신흥국 시장의 에너지 비용 부담 가중

VII. 기준금리의 향방은....

필리핀의 기준금리는 2023년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인상기**를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완만한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상태.

필리핀 중앙은행 2024년 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25bps 인하**.

연도	날짜	기준금리	변동폭	정책 기조 및 배경
2026년	02월 19일	<u>4.25%</u>	-25	물가 안정세 판단 하에 8회차 연속 인하 단행
2025년	6월 ~ 12월	5.25~ 4.50%	-75	하반기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선제적 인하. 소비 심리 회복 및 연준(Fed) 행보 대응.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 인플레이션 목표치(2~4%) 안착 확인 후 인하.
2024년	10월 ~ 12월	6.00%	-50	본격적인 피벗(Pivot) 시작
	01월 ~ 7월	6.50%	동결	고물가 억제를 위한 고금리 유지기

VII. 기준금리의 향방은....

- **공격적 피벗 중단**: 필리핀 중앙은행 24년 8월 이후 매 회의마다 금리를 내리며 경기 부양 집중, 26년 3월 임시 회의에서 동결 선언.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급등 압박)
- **실질 금리의 변화**: 26년 3월 물가가 4.1%로 치솟으면서, 기준금리(4.25%)와의 차이인 실질 금리가 0.15%p 수준으로 좁혀짐. 이는 추가 인하보다는 인상을 고려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 의미.
- **환율 방어 수단**: 페소 환율이 달러당 60페소 선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외본 자본 유출이 가속화. 당분간 '높은 수준의 유지(Higher for Longer)' 혹은 '제한적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 높음.

2026년 남은 기간의 금리 전망과 그 핵심 사유. (3가지 시나리오)

구분	가능성	전망 (26년 말 기준)	주요 전제 조건
금리 재인상 (Hike)	높음	4.50% ~ 4.75%	유가가 \$100를 상회하고 물가가 5%를 돌파할 경우
금리 동결 (Hold)	보통	4.25%	전쟁이 국지전에 그치고 물가가 4%대 초반에서 횡보할 경우
추가 인하 (Cut)	매우 낮음	4.00% 이하	조기 휴전이 성립되고 유가가 \$70대로 급락할 경우

VII. 금리 향방을 결정지을 4가지 핵심 사유

1. 공급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 필리핀 중앙은행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으면 물가가 4.3% 이상, \$100를 넘으면 5.1%까지 치솟을 것 예상.
- 이미 3월 물가가 4.1%를 찍으며 목표 상단(4%)을 돌파. BSP는 물가를 잡기 위해 그간의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매파적(Hawkish)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페소화 방어 (Currency Defense)

- 전쟁 불안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페소 환율이 60페소 레벨 등락.
- 환율 상승시 수입 물가가 더 뛰는 악순환 발생.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격차 유지 또는 오히려 인상하여 자본 유출 대응.

3. 미 연준(Fed)의 행보 변화

-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4월에서 6월 이후 혹은 그보다 더 뒤로 밀리고 있음.
- 필리핀이 **미국보다 먼저 또는 더 많이 금리를 내리기는 매우 부담**. 미국이 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필리핀도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지켜보거나 대응 인상을 할 가능성 높음.

4.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공포 >>>>> 제일 무서운 상황(튀르키예,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 성장은 둔화(2025년 4.4%)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26년 상반기 현실화.
- BSP는 '성장 부양'보다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VIII. 페소/달러(PHP/USD) [환율 추이 (2024-2026)]

강달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전반적인 약세(Depreciation) 흐름

연도	연평균/범위 (USD/PHP)	주요 상태	시장 특징
2026년(현재)	58.2 ~ 60.7	[심각한 변동성]	중동 전쟁 발발로 3월 말 60.7페소(역대급 저점) 기록 후 소폭 회복
2025년	55.6 ~ 59.0	[약세 지속]	무역 적자 확대 및 미국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페소 가치 하락
2024년	55.8 ~ 58.8	[박스권 약세]	중앙은행(BSP)의 금리 인하 시작으로 인한 통화 가치 희석



VIII. 페소/달러(PHP/USD) 환율

최근 3년 환율 변동의 4대 핵심 요인

1. 지정학적 리스크 (The War Factor)

- 미국-이란 분쟁이 격화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 폭증. 3월 30일 60.74페소라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상승.

2. 무역 적자 및 에너지 수입 (Trade Deficit)

-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달러 결제 부담이 커진 것이 페소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압박.

3. 미 연준(Fed) vs 필리핀 중앙은행(BSP) 금리 격차

- 미국이 금리를 'Higher for Longer(고금리 유지)' 기조로 가져가는 동안, 필리핀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24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 이 금리 차이(Interest Rate Differential)가 축소되면서 페소화 투자 매력도 감소.

4. 해외 송금(Remittance)의 방어 기제

- 페소화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준 유일한 버팀목 해외 노동자(OFW)들의 송금과 BPO 서비스. 매달 약 3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이 유입으로 페소가 60페소 위로 폭주하는 것을 일부 억제하는 쿠션 역할.

VIII. 필리핀 페소/달러(PHP/USD) 환율 전망

"Psychological Barrier of 60"

60페소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강한 심리적 저항선. 이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향후 수입 물가와 내수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

"Temporary Relief"

현재의 59페소대 복귀는 전쟁의 종식이 아닌 '잠시 멈춤'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방 리스크(환율 상승)가 여전히 존재



IX. 에너지..&

에너지 자급률이 낮아 원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은 필리핀 경제에 '비용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1. 유가 변동 현황과 필리핀의 에너지 구조

- 현재 상황: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20를 돌파(2026년 3월 말 기준)하며 전년 대비 40% 이상 급등.
- 구조적 취약성: 필리핀은 원유와 석탄의 수입 의존도가 90%에 육박. 따라서 유가 상승은 곧바로 국가 전체의 생산 및 운송 비용 상승으로 직결.(실제로 수입하는 원유는 두바이유)

2. 유가가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4단계 파급 효과

① 물가폭등 (Direct Inflation Impact)

- 현상: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기료와 대중교통 요금이 즉각 반응.
- 데이터: 2026년 3월 교통비 물가가 9.9% 급등하며 전체 인플레이션(4.1%)을 주도. 이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필리핀 경제의 엔진인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음.

IX. 에너지..&

② 무역 적자 심화 및 페소화 약세 (Trade & Forex Risk)

- 현상: 똑같은 양의 기름을 사 오는데 더 많은 달러를 지불.
- 영향: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페소 환율이 60페소 선을 계속 위협.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Second-round effect) 발생.

③ 제조업 및 인프라 사업의 비용 압박 (Supply-side Shock)

- 현상: 건설 장비 가동비와 공장 운영비가 상승.
- 영향: 필리핀 정부의 'Build, Better, More' 인프라 사업들의 건설 비용이 예상을 초과하게 되어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짐.

④ 통화 정책의 경직성 (Monetary Policy Constraint)

- 현상: 중앙은행(BSP)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유가발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짐.
- 상황: 2026년 초 기대했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멈춰 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유가.

IX. 에너지..&

3. 현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실제 상황 (Summary)

부문	현재 상황 (2026. 04)	경제적 여파
가계	실질 임금 하락 감수	구매력 저하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기업	생산 단가 급증	영업이익률 하락 및 신규 채용 동결
정부	유류세 감면 압박	재정 수입 감소 및 부채 부담 증가
금융	시장 금리 고공행진	대출 수요 감소 및 자산 건전성 관리 비상

X. 필리핀 정부의 5대 경제 위기 대응 전략

1. 유가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적 완충지대' 마련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보조금 정책 가동**.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일환)

- **유류세 한시적 감면**: PBBM 유류세(Excise Tax)의 일시적 중단 또는 감면을 지시 물류비 상승이 식료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
- **표적형 보조금 (Fuel Subsidies)**: 대중교통 운전자(PUV), 농민,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중교통 요금과 기본 식자재 가격 안정 도모.

2. '성장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

- **인프라 예산 6.6조 페소 투입**: 2026년 예산을 인프라(Build, Better, More)와 인적 자원에 집중 배치하고, 지연되었던 사업들을 1분기 내에 조기 발주하여 GDP 하락 방어 목표.
- **부패 방지 및 투명성 강화**: 부패 조사로 멈췄던 공공 건설 부문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민간 투자가 다시 유입되도록 유도.

X. 필리핀 정부의 5대 경제 위기 대응 전략

3.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통화 정책 공조**

페소가 60페소를 넘나드는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BSP)과 재무부(DOF) 긴밀히 협력 중.

- **금리의 전략적 운용**: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매파적 동결**' 혹은 '**미세 인상**'을 통해 달러 유출을 막는 방어막을 구축.
- **지역 금융 협력 강화**: ASEAN+3(한·중·일) 체제 내에서 '금융 안전망(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을 활용한 외화 유동성 확보에 주력.

4. 식량 안보를 위한 '**수입 다변화 및 관세 인하**'

엘니뇨와 태풍으로 타격을 입은 **농업 부문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

- **쌀 관세 인하 연장**: 쌀(Rice) 등 주요 식량에 대한 **관세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여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량을 확보.
- **비료 보조금 및 물류 혁신**: 유가 상승으로 비싼 비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 앞 직접 보조금 지원 & 농산물 유통망 디지털화를 통해 중간 마진을 줄이고 있음.

X. 필리핀 정부의 5대 경제 위기 대응 전략

5. 에너지 자립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Long-term Resilience)

단기 충격을 넘어 필리핀 경제 체질을 개선 움직임.

- 에너지 믹스 다변화: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 에너지 및 LNG 터미널 건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
- 디지털 금융 확산: 현금 없는 경제(Cashless Economy)를 가속화하여 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 포용성을 높여 내수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필리핀 정부는 현재 '방어(물가·환율)'와 '공격(인프라 투자·디지털 혁신)'이라는 양면 작전을 수행 중.

단기적으로는 전쟁 여파로 인한 고통 불가피.

정부의 강력한 재정 조기 집행과 선제적인 통화 정책 대응이 시너지 발휘 시, 26년 하반기 중 신흥국 중 가장 빠른 V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XI. 한국계 기업 전략

26년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의 핵심은

'얼마나 더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고금리·고유가 리스크를 얼마나 잘 분산(Decoupling)하고 관리하느냐'

1. 외환 리스크 관리: '페소화 밀착형' 재무 구조로 전환

환율이 60페소 레벨에서 외화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차손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잠식될 위험이 높음.

- 대응책: Natural Hedge 극대화(매출 통화와 비용 통화를 페소(PHP)로 일치시켜 환노출을 최소화)
 - **현지 차입 확대:** 한국 본사의 USD 대출(대여금 등) 을 현지 은행의 PHP 대출로 대환하거나 본사 지원을 통한 담보보강을 통한 한 페소화 운전자금 한도 확보.
 - **선물환(Forward) 활용:** 수입 결제 대금이 많은 기업은 환율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선물환 계약을 통해 결제 단가를 고정.(비용 발생)

XI. 한국계 기업 전략

2. 비용 구조 최적화 : 유가 및 인플레이션 '전이(Pass-through)' 전략

에너지 가격 폭등이 물류비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음. 핵심은 효율적 관리.

- 대응책:
 - **에너지 자립도 제고**: 필리핀 정부의 재생 에너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공장 및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고정적인 에너지 비용 체계를 구축.
 - **공급망 재편 (Localization)**: 수입 원자재 가격이 환율과 유가로 인해 급등하고 있으므로, 현지 조달 가능한 원부자재 비중을 높여 물류 리스크를 감소.
 - **가격 정책의 유연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하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융을 결합하여 체감 가격 부담 인하.

3. 유동성 및 신용 관리: 고금리 시대의 '현금 흐름' 방어

필리핀 기준금리가 4.25%대에서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의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

- 대응책:
 - **현금 자산 확보 강화**: 현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유휴 자금 관리 및 불필요한 단기 차입 억제.
 - **신용 리스크 모니터링**: 고금리로 인해 현지 협력사 부도 위험으로 매출채권 회수 기간 단축하고 신용 한도 재설정.
 -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중소기업지원금이나 특정 산업군(수출, 녹색 산업)에 제공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XI. 한국계 기업 전략

4. '디지털 बैं킹'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자금 투명성

필리핀의 금융 시스템은 급격히 디지털화중임. 하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수표(Check)와 수기 전표에 의존.

- 급여 지급, 세금 납부, 공급업체 결제를 순차적 디지털화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한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신용 등급을 높여 조달 금리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1. 에너지 리스크는 상시 변수다.
2. 정부 예산 집행의 선별적 진행 예의주시
3. 고금리 시대의 장기화 대비



Ang pag – asa ay lagging nariayan
희망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Banking Hours

Mon-Fri, 9:00AM to 4:00PM

21/F Zuellig Building Makati Avenue cor.
Paseo de Roxas St., Makati City,
Philippines

Trunkline: +632-8848-1988

For inquiries: kebmanila@hanafn.com

SWIFT: KOEXPHMM